

조합원이 앞장서는 회원조합 개혁운동

지금껏 농업협동조합의 실체는 조합원의 머슴 입을 자처하면서도 비민주적 관행아래 조합원의 머리꼭대기에서 제살 찌우기에만 몰두해 왔다. 우리 한농연은 80년대 말부터 협동조합의 민주화·자율화 문제를 비롯하여 협동조합의 각종 반농업적 관행에 대해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수많은 투쟁을 통한 개혁을 촉구해 왔으나, 농업협동조합은 끝내 관치조합의 태를 뿌리치지 못하고 오늘날 그 누구의 조직이라고 딱히 이야기할 수 없는 모호한 정체성을 간직한채 표류하고 있다.

국내 그 어느 기업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전국적인 조직망을 바탕으로, 천문학적 자산규모를 자랑하는 거대조직 농협!

지금의 이런 농협의 성과를 농업의 발전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는 농민조합원 개개인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한농연은 2003년을 협동조합개혁의 역사적인 해로 쏘기 박고자 한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금껏 키워온 개혁의 불씨에 기름을 부어 확실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투쟁방법으로 "회원조합 개혁 실천과제 합의운동"을 제시하며, 협동조합의 뿌리에 해당하는 회원조합부터 확실

히 개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왜 "회원조합 개혁 실천과제 합의운동"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협동조합개혁운동은 백화점식 개혁목표를 가지고 전개해온 '운동을 위한 운동'이었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어느 정도 요구가 관철되더라도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내 개혁적 성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제부터는 조합과 조합원간 중점개혁사안에 대한 상호합의 하에 개혁의 정도를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개혁의 방법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개혁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혁성향을 유지해 나가면서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올바른 방향제시도 아울러 담보해야 할 것이다.

"회원조합 개혁 실천과제 합의운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본 운동의 목표를 간략히 네가지로 요약하여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시킨다.

협동조합은 농민 모두의 조직이므로 전국의 모든 농민에 대해 보편적 수준의 개혁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역의 학연·지연 등의 지인관계로 개혁의 날이 무더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400만 농민 모두의 상호견제와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동조합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상호 개혁해야할 사안들을 교류해 가면서 협동조합 개혁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시킨다.

둘째, 조합원 모두가 개혁의 주체가 된다.

협동조합은 인적구성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이 주체적 개혁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개혁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적인 성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힘의 모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농연 하부조직의 운동역량을 강화시킨다.

자신이 속한 조합의 문제점을 스스로 조사하며 문제의식을 가짐으로써, 한농연 시·군연합회 및 읍·면회의 주체적 운동역량을 강화시킨다.

넷째, 협동조합개혁운동의 연속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본 운동을 통해 전국 회원조합의 신용·경제·지도사업의 운영실태가 한눈에 비교·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개혁해야할 사항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체크해가며 바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동조합개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다.

어떻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협동조합개혁의 아킬레스건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조합의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조사내용은 크게 신용·경제·지도사업으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는 조합의 민주화·농민조합원의 복지·경제사업의 발전방향·교육 및 지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꼼꼼히 체크해 나간다. 한농연중앙연합회에서 배포하는 조사표를 참고하고 조사표에 없는 사항도 별도로 체크하도록 한다. 조사표는 읍·면임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시·군연합회로 통보한다. 시·군연합회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엑셀작업을 통해 집계하여 도연합회로 파일전송한다. 각도연합회별로 집계된 내역은 중앙연합회로 다시 파일전송하고 중앙연합회에서는 회원조합의 사업현황이 전국적으로 한눈에 비교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집계한다.

이렇게 집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원조합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의하고 실천한다. 조합장 및 임·직원,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합의해 나간다. 합의 과정에서 개혁의 수위조절은 중앙연합회에 집계되어 있는 전국적인 조합운영실태 조사표를 참고하고 상향평준화 시키는데 주력한다. 최종 합의된 개혁과제를 가지고 단기간에 실천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해 나간다. 예산반영 등의 이유로 당장 실천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연말 총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각 조합별 최종합의 내용은 중앙연합회에서 다시 집계하여

합의내용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감시·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

운동방식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서로 공유하고 독려한다. 같은 현안이라도 운동방식에 따라 얻어내는 성과는 각기 다르다. 시·군연합회간 또는 읍·면회간 개혁운동의 방식에 대해 서로 공유함으로써 운동의 효율성을 기한다. 연말에는 한농연 대의원총회에서 협동조합개혁운동 우수 시·군연합회에 대해 각별히 그 공로를 표창할 예정이다.

회원조합의 어떠한 부분이 조사대상이며 개혁과제가 되는가?

그럼 회원조합의 개혁을 위한 활동에는 어떤 것

이 있으며 어떤 내용이 개혁과제가 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 우리조합의 대의원, 이·감사, 조합장의 평균연령과 개혁성향을 조사해 보고 현실 안주의 모습이 다분한 경우 젊은층의 개혁적 성향을 가진 조합원의 임원진출을 이끌어내는 것이 개혁과제가 될 것이다.

◇ 농협직원의 행동 지침인 조합의 규정집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현실성을 조사하여 조합원에게 다분히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사회에 거론하여 과감히 개혁해 나간다.

◇ 평소 우리조합 이사회의 운영방향을 관찰하고 조사하여 조합원의 의지와 동떨어지는 독자적·파행적 운영이 예상될 경우 이사회에 조합원

대표나 농민단체 대표가 참관하도록 관철시킨다.

◇ 조합은 조합운영 전반에 관하여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이나 회계용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조합원이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 만큼, 조합운영에 있어 투명성 여부와 정보공개 여부를 조사해 보고 조합의 자산현황이나 금리체계, 직원의 급여내역, 출자배당, 정관, 규정, 회의록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다.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이 외에도 지역별로 수많은 개혁과제의 발굴과 다양한 방법의 개혁활동이 있을 수 있다. 인농연

“회원조합 개혁 실천과제 합의운동”의 세부활동 계획

○ 1단계 활동계획

4월 10일 협동조합개혁 선포식을 시작으로 5월말까지 지역조합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조사표를 작성한다. 작성된 조사표를 시·군연합회로 송부하고 조합개혁을 위한 지역여론을 조성한다.

○ 2단계 활동계획

6월말까지 지역조합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최종합의 직전까지 개혁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 3단계 활동계획

7월중으로 조합과 최종적인 개혁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다. 조합과 조합원간 ‘개혁합의내용 이행결의대회’ 등을 통해 약속이행을 더욱 공고히 한다. 합의안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외부적으로 공언하는 활동을 한다. 상부조직에 통보하여 개혁성과를 집계하도록 한다.

○ 4단계 활동계획

중앙연합회에서 개혁성과에 대한 최종집계를 하여 공고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체제로 전환한다. 대의원총회에서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사업보고를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